01 교회소식
참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는 주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 본당 앞에서 열린 '2018 성탄점등식'과 GCN방송이 유럽기독방송인협회 총회에 참석한 소식.

02 생명의 말씀
네 의와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승리와 풍요를 얻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다.

03 기획특집
세 가지 예물의 의미
동방에서 박사들이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며 드린 황금, 유향, 몰약의 영적 의미를 살펴본다.

04 간증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을 영접한 인도 안날 성도와 유튜브를 통해 생명의 제단으로 인도받은 박철국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869호 2018년 12월 23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2018 성탄 점등식'

2천여 년 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 본당 앞에서 '2018 성탄점등식'이 거행되었다.

12월 14일(금) 밤 9시 50분, GCN방송으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드리세, 구주 오늘 나셨네" 연합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울려 퍼졌다. 이후 사회자와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 새 예루살렘!"을 크게 외치자 교역자회 회장 이수진 목사가 "함께 가요!"로 화답하는 순간, 폭죽과 함께 성탄 장식에 일제히 불이 들어와 어둠을 밝혔다.

예능위원회에서 듀엣으로 준비한 '캐럴 메들리' 특송이 있은 후, 이수진 목사는 "천지 만물의 주재이시며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와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천국의 영광 중에 들이시고자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사랑임을 아는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사람들인지요. 서로 더욱 사랑합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행복이 더욱 넘치는 2018년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올해 야외 성탄 장식은 '주님의 사랑'을 주제로 대형 트리와 주님의 탄생 성화, 꽃 장식 등으로 아름답게 꾸며졌으며, 본당은 '사랑의 주님'이라는 주제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과 눈 결정체, 성탄 트리와 파노라마 LED 조명, 고급스러운 꽃 장식과 원형 리스 등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12월 24일(월) 저녁 7시에는 성탄전야예배 후 예능위원회 주관으로 성탄전야콘서트 '주님의 탄생'과 축하 공연이 진행되며, 성탄절인 25일(화) 오전 11시에는 성탄예배를 드려 사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GCN방송, 유럽기독방송인협회 (FEB) 총회에 참석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16개국 기독 방송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럽기독방송인협회(FEB) 총회에 우리 교회 GCN방송이 참석하여 만민의 사역을 알렸다.

11월 29일(목) 개막식에서 유럽기독방송인협회 하비토마스 회장은 GCN방송의 참석에 감사를 표하며, "GCN방송을 이루는 만민의 사역은 우리도 본받고 싶은 빛나는 샘플이요, 전 세계를 향한 간증이다"라고 말했다.

30일(금) 행사에는 GCN방송 국장 김진홍 장로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능 사역이 담긴 홍보 영상과 함께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GCN방송과 만민의 사역을 유럽 기독방송인들에게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 크로아티아 기독 TV 프로덕션의 마리오 스카니 대표는 "크게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사역은 처음이다. 다양한 내용과 역동성 등 완벽하다"라고 했으며, 아일랜드 스피릿 라디오 톱 클라크 대표는 "매우 충만하다. 전 세계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미칠 다양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독일 바이블 TV 베아트 부시 대표는 "한국의 기술은 대단하다. GCN방송과 교류하고 싶다. 유럽에 오면 언제든 바이블 TV를 꼭 방문해 달라"고 하였다.

12월 1일(토) 오전 행사에서도 GCN방송의 사역을 유럽 기독방송인들에게 구체적으로 홍보하였다. 한편, GCN방송은 이번 행사의 참석을 통해 유럽 기독방송계의 현황과 문제점, 전략 등을 파악하고, 독일 바이블 TV 등 유력한 방송사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시리즈 10

네 의와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 시편 37:5~6 –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의가 빛같이, 그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서
승리와 풍요를 얻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냅니다”*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오늘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 세상은 기본적인 윤리마저 붕괴된 지 오래 되었고, 도처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 행악자가 기승을 부리는 등 때로는 정직한 사람보다 오히려 악인이 대접받고 융성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일까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과 어두움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이 아직 버리지 못한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지요. 과연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여섯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우리 마음가짐에 관한 분야

시편 37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어두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투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악자의 불의를 목격하는 사람은 그들이 잘되는 것 같아 보이면 이에 대해 불평을 하거나 내심 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혹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불평이나 투기라는 악의 모양이 있을 수 없기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거나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자신도 악인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의 적극적인 자세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며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는 것입니다(시편 37:3).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실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영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2.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관한 분야

시편 37편 2절에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풀이나 푸른 채소는 일시적인 것, 특히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지 않으시는 무상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악인의 잘됨은 풀이 곧 베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가 쇠잔해짐과 같이 일시적인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잠언 24장 19~20절에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했습니다. 이는 악인의 종국은 멀지 않지만 의인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대비시켜 주시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하사 약속된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악인의 무너짐은 속히 진행되며 누리는 번영은 덧없고 잠정적일 뿐임을 안다면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며 시기하고 질투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했습니다. 악인에 대해 분을 품고 불평한다면 자신 역시 악한 일에 동참하는 행위가 되므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불평하며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그 배경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더욱 악으로 치닫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악의 불식은 분을 내어 불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롬 12:21).

3. 여호와를 기뻐하는 방법에 관한 분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자녀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월/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믿고 행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생명도 드릴 수 있는 믿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곧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지요(히 10:22).

그런데 시편 37편을 통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분야는 자기 길이 형통한 사람을 불평하지 않으며,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시 37:7). 여기서 자기 길이 형통한 사람이란 자신의 방식에 따라 번영하는 사람을 말하며, 시편 37편 1절을 통해 행악자를 인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거듭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 것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은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며, 응답의 문을 여는 담대한 행함입니다. 따라서 가장 적극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며 잠잠히 참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4.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의 결과에 관한 분야

앞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일시적인 형통함을 불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악인이 잘되는 것을 투기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성숙한 단계는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입니다(시 37:5~6).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니 원수도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기뻐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할 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간섭하셔서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빛이 비추이면 사물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간섭은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의가 빛같이, 그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서 승리와 풍요를 얻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좌우로 치우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의를 추구하며 산다 하면서도 자신의 악을 버리지 못하여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에게 해를 가하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금방 불편해지고 분하여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의 원통함을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려고 하며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고자 하지요. 이는 설령 조직의 화평이 깨어지고 상대가 고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속이 시원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자기 보기에 아무리 의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감정과 악을 이기지 못하는 어두움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한 반면 상대의 잘못은 용납하지 않으려 하고 서슴없이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선하고 온유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허물이나 단점을 들추지 않으며, 손가락질 받는 사람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기뻐하시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차원에 이른 사람과 동행해 주시며 그 의를 빛같이,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십니다.

5.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의 기업에 관한 분야

시편 37편 9~11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진정한 축복인 줄을 알고 그분만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하는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세상 만물이 운행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삶과 죽음, 지혜와 어리석음, 보상과 징벌 등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아도 그렇듯이 악인들은 그 쌓은 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시들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차지할 뿐 아니라 풍부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짐짓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잠시 잠깐의 영화를 누리다가 결국 사라지게 되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온유한 사람은 땅 곧 이 세상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게 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6.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에 관한 분야

한 예로, 어떤 사람은 구약성경에 소개된 룻이라는 여인의 모습 중 나름대로 자신이 닮은 점이 있다면 '나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니까', '나도 정한 바를 잘 지켜 행하니까' 등을 들어 마치 다 된 것처럼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하나님께서 룻을 높이고 기뻐하셨던 데에는 룻의 단면적인 착함이나 의로움, 진실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룻의 행함이나 삶의 방식, 그리고 룻의 마음됨됨이와 인물 됨됨이를 빛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그만큼 기록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굳이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없기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다 해도 그들의 중심과 인물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믿음의 증인들을 본받아 빛으로 들어가려면, 표면적인 장점만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인물됨에 관해 그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종합해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끝이 없고 무한한 세계이니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신을 연마해 정금과 같이, 견고한 보석과 같이 다듬어 온전케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비상하듯 여러분의 의로움이 큰 빛을 발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도 넓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ip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의 영적 의미

'마음'을 의미하는 황금

부귀와 재물을 상징하는 황금은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 한 대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황금을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드린다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황금과 보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아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장차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축복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하는 유향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악취를 제거해 주는 유향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징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모습이 바로 주님 앞에 유향을 드리는 것이다. 유향을 예물로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더럽고 냄새나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대속하시고 성결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아 범사가 형통하며 영육 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요삼 1:2).

'변함없는 믿음'을 의미하는 몰약

몰약은 부패를 막아 주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 동방박사들이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은 영적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린다는 것으로 변함없는 믿음을 의미한다. 이런 변함없는 마음이 되려면 먼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살전 5:22). 악의 모양이 남아 있으면 자신의 유익을 좇아 변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몰약을 예물로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체의 몸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날 성도 (79세, 인도 마두라이만민교회)

저는 힌두교 가정에서 성장해 많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외국으로 일하러 간 지 7년째 된 손자와 갑자기 소식이 끊겼습니다.

불길한 생각으로 온 가족이 낙담하고 있을 때, 우연히 마두라이만민교회에 다니는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에게 제 손자에 관해 이야기하니 교회에 기도 모임이 있다며 그곳에 가면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요. 처음 가보는 교회에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이후 놀랍게도 손자가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 저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 2014년 4월 마두라이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경도 배우고,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워하면서 받은 은혜를 전하니 셋째 딸 가족이 전도되어 치료의 체험도 했습니다. 사위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받은 뒤, 잘 들리지 않던 양귀의 청력이 회복되었으며 손녀는 유산의 위험에서 지킴받았지요.

2018년 초, 저는 외출을 준비하던 중 욕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크게 부딪쳐 일어나지 못하자 딸과 손녀가 놀라서 급히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혼자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머리는 괜찮지만 허리를 다쳤다며 약 처방과 함께 허리보호대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담임 퍼시얼 목사님에게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았고, 목사님은 하계수련회 때 치료받도록 준비하자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수련회를 기다리던 어느 날, 금요철야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전에 상영되는 만민매거진에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였던 박점옥 권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쇄골절 된 발목뼈가 수술하지 않고도 당회장님의 기도로 치료됐다는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지요.

저는 ‘기도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 바로 허리보호대를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성껏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만민하계수련회를 준비했지요.

드디어 8월 6일(월) GCN방송 생방송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여 강사 이수진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 몸에서 땀이 흠뻑 나더니 이후로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허리의 움직임도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제는 매일 25분 거리의 길을 걸어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고, 지난 9월에는 인도 첸나이에서 있었던 수련회도 1박 2일로 참석하였지요. 팔순을 앞둔 나이에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공간을 초월하여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X-ray 촬영

기도받기 전 ▶ 요추 4번이 5번과 나란히 있지 않고 앞쪽으로 이동됨

“유튜브를 통해 생명의 제단을 만났습니다!”

박철국 집사 (37세, 중국 1교구)

스무 살 때 주님을 영접하여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저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에 교회 밖을 나오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2015년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GCN방송의 ‘창조와 과학’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이재록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설교가 삽입돼 나오는데 인류의 탄생, 피라미드 등 평소 저의 관심 분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 뒤 인터넷에서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하나 찾아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우니까 틈만 나면 자꾸 찾아 듣게 되었습니다. 100여 편이 넘는 ‘창세기 강해’ 설교와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등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이 진짜, 참이구나!’ 깨달아졌습니다.

3년 동안 인터넷으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저는 2017년 12월, 드디어 아내와 함께 만민의 양 떼가 되었습니다. 성결한 삶을 몸소 실천하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저는 결단하여 술, 담배를 끊게 되었고 아내도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니 가정이 더욱 화목해졌지요.

2018년 2월, 장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는데 혈액검사 결과 난소암일 가능성이 99%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당회장님의 기도로 수많은 성도가 불치·난치병을 치료받는 것들을 보았기에 장모님에게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한 치료의 역사를 말씀드리며 전도하였습니다.

때마침 설을 맞아 당회장님과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기에 저희 부부는 기도로 준비하였고, 장모님도 타 교회에서 30년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것을 눈물로 회개하셨지요. 마침내 2018년 2월 15일, 저희 가족은 당회장님의 전체 기도를 받을 수 있었고, 19일에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의사는 난소에서 암 소견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건강을 회복하신 장모님은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담대히 전하고 계시며, 이를 통해 장인 어르신도 전도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제단으로 인도하시고 온 가족이 참 행복을 얻게 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제는 주의 나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치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 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8331-1136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89,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010-2352-8336